울 산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이 나아갈 길 – 19대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김태선 | 민주통합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처장

울산의 야권공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야권선대위. 위원장 : 민주통합당 임동호 공동시당위원장, 민주통합당 고영호 공동시당위원장,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 통합진보당 노옥희 공동시당위원장)는 4.11총선에서 울산지역 6개 모든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에게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울산 지역 6개 선거구에서 모두 50%의 득표율을 넘기며, 울산의 강자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 울산의 정치 지형 및 야권연대

울산은 보통 때도 6개 지역구 모두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50%를 넘어서면서 이를 입증했다. 울산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승격(1998년)된 이후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최소 45%에서 60%에 이르렀다.

1998년 이후 내리 10여년 간 새누리당의 독주가 지속되자, 울산의 야권(구 민주당, 구 민주노동당, 구 진보신당)은 2009년 4. 29 재보궐선거 때부터 연대를 시작했다. 2009년 4.29 울산 북구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성공(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당선)한 후, 2010년 6.2 지방선거를 비롯해 재보궐선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됐다.

이번 4.11 총선 역시 작년 중후반부터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시작됐고, 이는 올 초 3월 25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야권공동선대위가 출범함으로써 완성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권연대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울산 전체 6개 지역구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져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했지만, 새누리당이라는 큰 벽은 넘지 못했다.

2. 울산의 각 선거구 분석

1) 중구

중구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 양보를 받아낸 유일한 지역구다. 중구에서는 임동호 시당위원장과 참여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송철호 변호사가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다. 하지만 임동호 위원장이 경선 막바지에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에 등록. 자연스럽게 송철호 변호사가 공천장을 받게 된다. 송철호 후보는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막역한 사이로 울산에서 문재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이사장이 울산을 자주 방문해 송철호 후보를 지지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중구 지역 3선의 현역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울산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서 박근혜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선거 초반 중구 시·구의원들로부터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지만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공천장을 따냈다.

그 밖에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와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변영태 후보 등이 중구 지역에 나섰다.

중구는 '송철호 vs 정갑윤'의 싸움이 '문재인 vs 박근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고. 여기에 야권 성향의 변영태 후보와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가 야권을 분열시킨 형국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바람보다는 박근혜 바람이 울산에서 훨씬 거셌고, 야권의 분열로 제대로 된 1:1 구도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남구갑

남구갑의 경우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없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울산시장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구 현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김창현 후보에게 북구를 물려주고 남구갑에 출마를 강행,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남구갑이 아닌 북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현역이라는 프리미엄과 울산에서 진보정치로 대변되는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과의 싸움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쌓아온 민심과 치밀한 전략으로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가 조승수 의원을 밀어내고 야권단일후보가 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역 3선 의원인 최병국 의원이 전 남구청장 출신인 이채익 후보에게 공천을 빼앗긴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 했으나, 결국 백의종군 자세를 취함으로써 여권의 분열을 잠재웠다.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남구청장 출신에 지역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인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후보로 평가된다. 여기에 여권 성향의 김헌득 후보가 출마한 상태였다.

남구갑은 본 선거 들어가기 전 현역인 최병국 의원의 공천 탈락, 여권 성향의 김헌득 후보의 출마 강행 등으로 조승수 현역 의원을 꺾은 통합진보당의 심규명 후보가 한층 고무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선거 막판에 이르러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은 상당했다. 40%에 머물던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막판 50%에 육박하며 이를 증명했다. 특히 남구 시·구 의원 모두 이채익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막판 선거 분위기는 새누리당이 전부 가져갔다 볼 수 있다.

3) 남구을

남구을은 민주통합당에서 야권연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의한 지역구로써,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된다. 김진석 후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도전, 아쉽게 석패한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재선 출신의 김기현 후보가 무난히 공천을 받게 된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에 중앙당에서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 아직 젊기 때문에 새누리당 울산 지역 정가에서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 초반 7:3 구도로 김기현 후보가 김진석 후보를 앞서 나갔고, 선전을 예상하던 김진석 후보가 의외로 고전하는 형국으로 전개되어 갔다. 김기현 캠프의 인물중심 전략이 그대로 먹힌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김진석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게 석패하게 된다.

4) 북구, 동구

북구와 동구는 노동자 정치 1번지로 불린다.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노동자 층을 중심으로, 동구는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출신이다. 즉 북구와 동구는 구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창현 통합진보당 후보의 경우, 동구에서 동구청장을 역임한 이후, 북구로 넘어가 북구 현 국회의원인 조승수 후보

와 당내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쳐 북구 후보가 되었다.

민주통합당 이상범 후보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북구청장을 역임한 인재다. 하지만 김창현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에 아쉽게 패배해, 북구에서 민주통합당의 역할을 찾지 못했다. 이는 민주통합당 당내 공천이 너무 늦게 이뤄지는 바람에, 통합진보당과의 경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영남 전체의 야권연대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빨리 공천장을 주지 못한 게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누리당에서는 북구 당협위원장인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공천권을 획득한다. 박대동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임에도 불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등 새누리당의 정체성과는 사뭇 다른 색깔을 유지함으로써, '새누리당 vs 야권단일후보'의 경쟁 구도를 '박대동 vs 김창현'이라는 인물 구도의 전략을 펼쳐갔다. 특히 선거 막바지 북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단일후보 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로 접어들자, 새누리당 중앙당은 이 지역에 융단폭격을 실시한다. 결과 새누리당의 박대동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동구의 경우 동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이었던 이은주 의원이 시의원에서 사퇴를 한 후, 통합진보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동구에서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의한 후,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결합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정몽준 의원이 18대 국회부터 서울로 지역구를 옮김에 따라 자신의 사무국장이었던 안효대 국장이 출마를 하게 된다. 이에 18대 국회의원에 입성한 후, 19대에서도 무난하게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안효대 후보의 경우 북구의 박대동 후보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새누리당의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북구와 동구의 경우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없이 당선되

는 것이 사실 상 어렵다. 더불어 자신의 지역구였던 정몽준 의원이 수 차례 동구 지역을 찾아 안효대 후보의 지원 사격을 하면서 동구에서 안효대 후보의 장악력은 더욱 커져갔다. 그 결과 50%가 넘는 지지율로 안효대 후보가 이은주 후보를 꺾고 승리하게 된다.

5) 울주군

울주군은 민주통합당 당내 경선 이후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통합진보당 후보와 또다시 경선을 치러야 했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3선 시의원을 역임한 김춘생 후보와 노무현 정부 행정관을 지낸 송규봉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이뤄, 김춘생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가 된다. 이후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와 경선을 진행, 이선호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은 울주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는 당내 경선 일정이 상당 부분 늦어져 야권단일후보 경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당내 경선 이후 1주일 만에 야권단일후보 경선이 치러져 통합진보당과의 경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했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는 지난 국민참여당 울산시당 위원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에 합류한 후, 울주군에서 텃밭을 가꿔온 인물이다.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는 17대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울주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획득하게 된다.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강길부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정도다.

선거 초반 8:2 구도로 강길부 후보가 이선호 후보를 앞질러 갔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길부 후보가 앞서 나가, 결과는 7:3으로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가 승리했다.

3. 종합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울산 6개의 지역구 중 동구와 남구을을 전략적으로 통합진보당에게 양보한 후 4곳에서 후보를 낸 반면, 통합진보당의 경우 중구를 민주통합당에 양보하고 5개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서로 양보한 중구, 동구, 남구을을 제외한 남구갑, 북구, 울주군에서 야권단일후보 경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남구갑은 민주통합당 승리, 북구, 울주군은 통합진보당의 승리했다. 민주통합당이 이긴 남구갑의 경우 우리 후보가 1명이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과의 경선을 충분히 준비할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후보가 진 북구와 울주군의 경우, 당내 경선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당내 경선을 치러내는 바람에 통합진보당과의 경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 실제 북구의 경우는 전국적 야권연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공천 발표도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이에 우리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앙당의 결정만 바라보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이뤄내기 위한 중앙당 방침이 역으로 울산의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는 큰 피해로 작용한 셈이다.

특히 야권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경쟁력 방식이 아닌 적합도 방식)까지 중앙에서 결정, 울산의 지역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야권단일후보는 민주통합당 2곳, 통합진보당 4곳으로 결정되어 새누리당과 경쟁에 들어갔다.

1) 패배 원인

첫째, 선명성과 전략 부족이다.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한 뒤, 1:1 구도를 만들었지만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의 전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 야권단일후

보가 필요한지, 새누리당의 실체가 어떤지,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둘째, 울산 지역은 'MB정권 · 새누리당 심판'이라는 전국단위의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 특히 선거 막판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김용민 막말'이라는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 결집해 야권단일후보를 심판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할 수 있다. 이는 50%에 육박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중앙당의 울산 지원은 어느 선거 때보다 강력했다. 박근혜 위원장이 비공식 울산 방문을 제외하고 본 선거운동 기간 중 2번이나 울산을 방문해 울산 전 지역을 돌았고, 정몽준 의원, 김형오 의원, 김무성 의원, 원희룡 의원, 이혜훈 의원 등이 울산을 자주 찾았다. 실제 박근혜 위원장이 울산을 찾을 때마다 울산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경우 그 의지가 미약했다. 아무리 싸워도 안 될 지역이라는 안이한 판단이 선거 막판 민주통합당 지지층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다.

2) 성과

첫째, 민주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이다. 구 민주당은 울산에서 15~1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울산에서 평균 25%의 지지율을 이끌어냈다. 이는 기초의원 한 석 없는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의 존재감을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부각시킨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견고해진 야권연대다. 2009년부터 시작된 야권연대가 이번 총선을 겪으며 더욱 견고해졌고 강해졌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울산에서 만큼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신뢰가 어느 지역보다 두터워졌다 할 수 있다.

셋째, 승리의 가능성이다. 이번 총선에서 아쉽게 모두 패배했지만, 그 어느 총선 때보다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 이는 역으로 야권단일후보가 새누리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노력한다면 새누리당을 꺾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울산은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한 석도 없는 민주통합당의 변방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획득했고, 민주당 · 시민통합당 · 한국노총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 성과를 가지고 있다. 울산의 민주통합당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정비해 올해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의석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 지원이 절실하다. 어차피 안 될 지역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접고, 어려운 지역이니 좀 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울산 민주통합당은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